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제 목 : [BOK 강원경제 메모 14호]

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

□ 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 현황*을 분석한 결과, 주요 업종의 폐업률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

*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, 한국은행 가계부채DB 등의 자료를 활용

○ 음식점, 소매업체의 폐업률이 예년 수준을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

○ 폐업 증가로 폐업공제금 수령, 대위변제도 늘어나는 가운데 강원지역 자영업자의 부채의 질취약차주 대출 증가도 악화

□ 재취업, 재창업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자영업자의 연락처를 유도하고,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

○ 특히, 강원지역의 경우 재창업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준비되지 않은 회전문 창업을 방지할 필요

※ 주요 내용은 <붙임1>[BOK 강원경제 메모 <2024-14호>]을, 보다 자세한 내용은 <붙임2>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기획금융팀 과장 김동욱, 조사역 나용남, 청년인턴 이현재

Tel : (033) 258-3291, 3296, 3292 Fax : (033) 258-3239 E-mail : gangwon@bok.or.kr

“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s://www.bok.or.kr/gangwon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강원본부

BOK
강원경제
메모
<2024-14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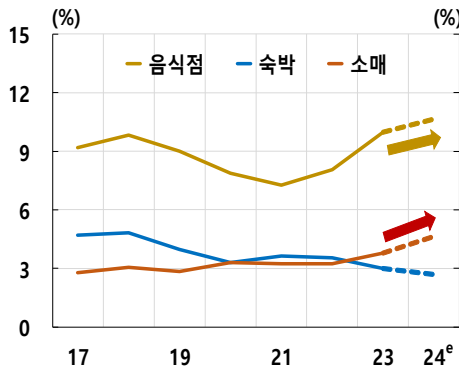
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

- 강원지역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'23년부터 상승 전환하여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
 - 특히 금년중 음식점과 소매업체의 폐업률 지방행정인가데이터 기준은 '15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
- 재취업·재창업 지원 등으로 폐업 자영업자의 연락처 유도
 - ▶ ① 폐업부담 완화, ② 회전문 창업 방지, ③ 준비된 창업 유도
 - 중장기적으로 '자영업 경쟁력 강화'에 중점
 - ▶ ④ 디지털화 지원, ⑤ 지원업체 선별 강화

[그림1] 강원지역 음식점(+0.7%p)과 소매업체(+0.8%p)의 폐업률이 금년중에도 상승

강원지역 음식점, 소매업체의 폐업률은 '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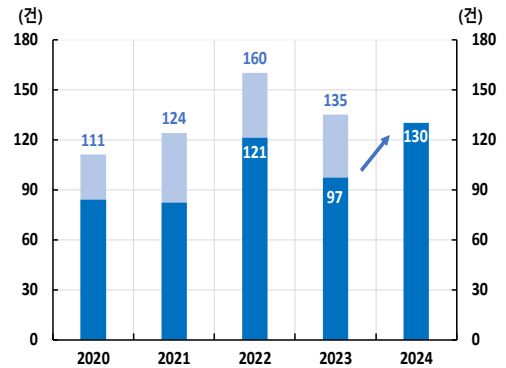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주요 업종 폐업률¹⁾



주: '24.10~12월 폐업건수는 추정치
자료: 행정안전부(지방행정인가)

강원지역 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도 전문공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

[그림 2] 전문공사업 폐업률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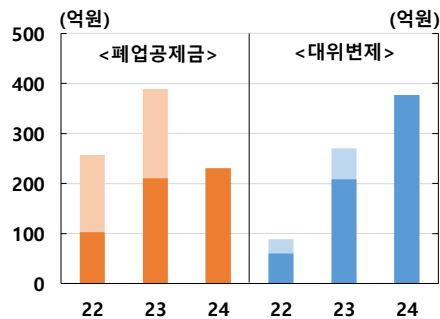
주: '24년은 1~10월중 신고건수
자료: 국토교통부

[그림2] 지역내 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는 금년 1~10월중 전년동기대비 큰 폭 증가(+27.0%)

[그림3] 폐업이 늘며 폐업공제금 수령(상반기중 +10.0%) 및 대위변제 증가(1~9월중 +81.3%)

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,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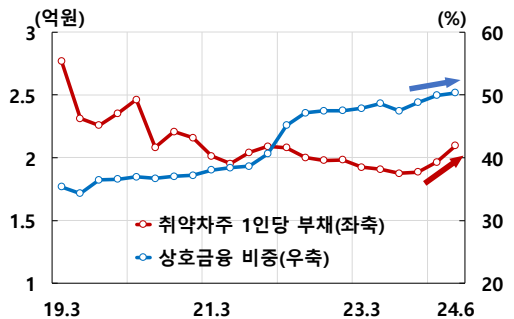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폐업공제금과 대위변제¹⁾



주: '24년 폐업공제금은 상반기중, '24년 대위변제는 1~9월중 금액 기준
자료: 중소기업중앙회, 신용보증재단중앙회

강원지역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1인당 부채와 상호금융 비중이 빠르게 증가

[그림 4] 강원지역 자영업자 대출¹⁾



주: 말잔 기준
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[그림4] 강원지역 자영업자 취약차주 1인당 대출액(+11.1%)과 상호금융의 대출비중(+1.5%p)이 크게 증가

<붙임2>

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

2024. 11.

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국은행 강원본부

<작성자> 기획금융팀 김동욱 과장, 나용남 조사역, 이현재 청년인턴

1. 검토 배경

□ 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*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

*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자, 국세청 국세통계의 개인사업자 등을 활용

○ (폐업 증가)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'22년까지 낮은 수준 유지하다가 '23년부터 상승 전환*

* 개인사업자 폐업률(% , 국세통계): '21년 9.5 → '22년 9.2 → '23년 9.8 (+0.6%p)

○ (비중 축소) 강원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25.6%(19년, 20.8만명)였으나 이후 '24년 22.8%(1~9월 평균, 19.3만명)까지 지속적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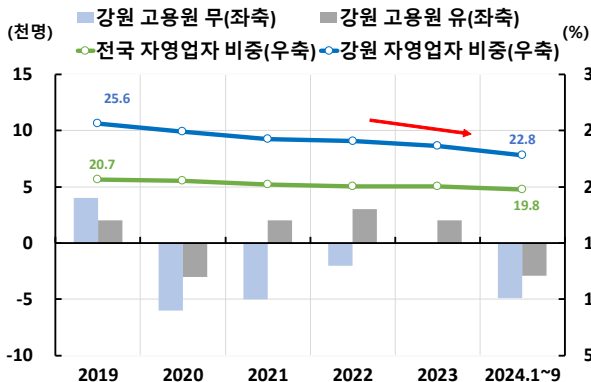
— 특히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16.5만명('19년)에서 '24년 1~9월중 14.9만명으로 크게 감소

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기타 서비스업* 비중이 증가

* 개인서비스업(+0.7%p), 교육서비스업(+0.4%p), 전문과학기술(+0.8%p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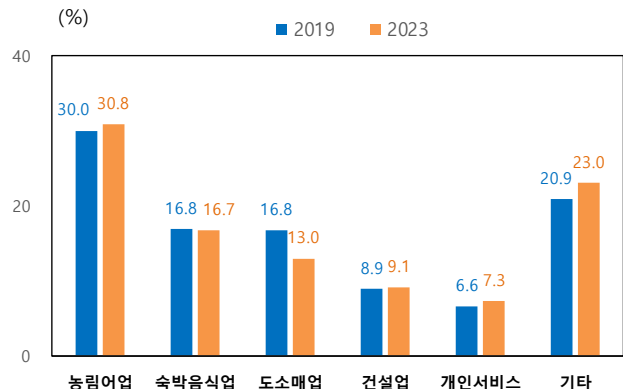
⇒ 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의 폐업 현황을 지방행정인허가, 가계부채DB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
강원지역 자영업자 비중 및 증감



주: 자영업자 증감(월평균)은 전년동기대비
 자료: 통계청(경제활동인구조사)

강원지역 업종별 자영업자 비중



주: 1) 해당연도 하반기 기준
 자료: 통계청(지역별 고용조사 미시자료)

2. 자영업자 폐업 현황

1 자영업자 폐업률 개황

□ 강원지역 자영업자*의 폐업률**은 전국과 같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3년부터 상승 전환하는 모습

* 국세통계상의 개인사업자(일반사업자, 간이사업자, 면세사업자)를 의미

** 폐업률(창업률)은 미국 기업생멸통계(BDS, Business Dynamics Statistics)에 따라 t 기에 폐업(창업)한 업체 수를 t 와 $t-1$ 기에 활동한 업체 수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. 즉, 폐업률 $_t = \frac{\text{폐업업체}_t}{\frac{1}{2}(\text{활동업체}_t + \text{활동업체}_{t-1})}$, 창업률 $_t = \frac{\text{창업업체}_t}{\frac{1}{2}(\text{활동업체}_t + \text{활동업체}_{t-1})}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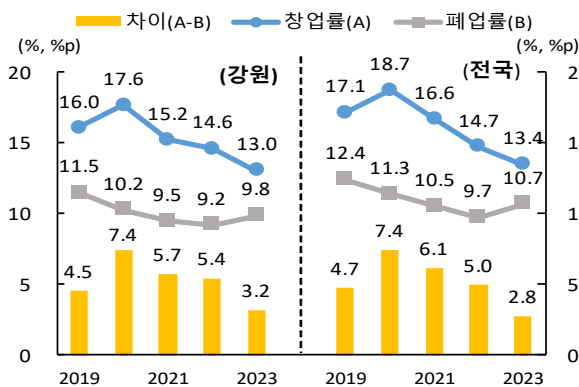
○ 2023년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(+0.6%p)한 9.8%로 전국 평균(10.7%)을 하회

□ [주요 업종] 2023년중 소매업, 음식점업, 건설업의 폐업률*이 크게 상승

* 주요 업종의 폐업률(%), 대괄호([]) 내는 2023년 기준 해당업종 자영업자수 비중 :
 소매업[15.0%]: 2021년 13.2 → 2022년 13.8 → 2023년 16.7 (+2.9%p)
 음식점업[13.6%]: 2021년 13.3 → 2022년 13.9 → 2023년 15.7 (+1.8%p)
 건설업[8.0%]: 2021년 8.0 → 2022년 7.8 → 2023년 9.3 (+1.5%p)
 숙박업[2.9%]: 2021년 9.34 → 2022년 7.93 → 2023년 7.87 (-0.1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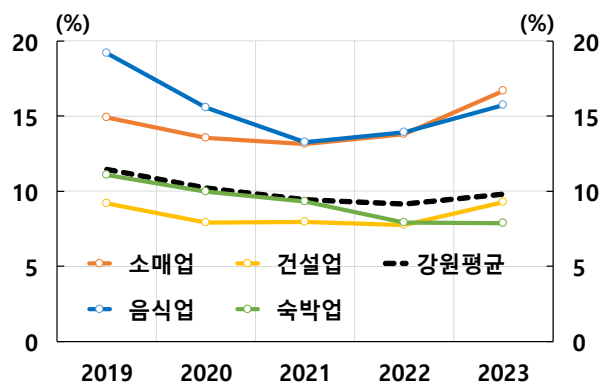
○ 한편 숙박업의 폐업률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

자영업자 폐업률 및 창업률 추이



자료: 국세청(국세통계)

강원지역 자영업자 업종별 폐업률¹⁾



주: 1) 업태별 자료 기준
 자료: 국세청(국세통계)

2 주요 업종의 최근 폐업률*

*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금년중 강원지역 주요 업종의 폐업현황을 점검. 자세한 사항은 <참고1>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개요 참조

[음식점과 소매업체 중심으로 금년중에도 폐업률 상승 지속]

□ **[음식점]** 음식점의 폐업건수는 금년중에도 전년대비 증가*하여 올해 폐업률이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**

* 연도별 1~9월중 폐업건수: '22년 1,856 → '23년 2,600 → '24년 2,800 (+7.7%)

** '24.10~12월은 전년동기 폐업건수가 '24.1~9월중의 전년대비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

○ 음식점 창업률은 금년중에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지역내 음식업체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□ **[소매]** 소매(유통)업체의 폐업도 금년 1~9월중 크게 증가*하면서 금년 폐업률이 전년보다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**

* '24년 1~9월중 폐업건수는 1,364건으로 이미 '23년 연간수치(1,374)와 유사한 수준

** 소매업체 폐업률(%): '21년 3.2 → '22년 3.2 → '23년 3.8 → '24년^e 4.6 (+0.8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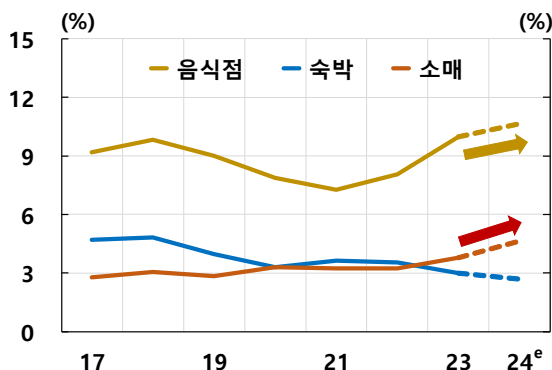
○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(금년 1~9월중 +7.4%, 전년동기대비) 등에 주로 기인*

* 강원은 외지인 소비 비중이 높아 온라인쇼핑 증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

□ **[숙박]** 숙박업체는 금년중에도 폐업률*과 창업률이 전년에 이어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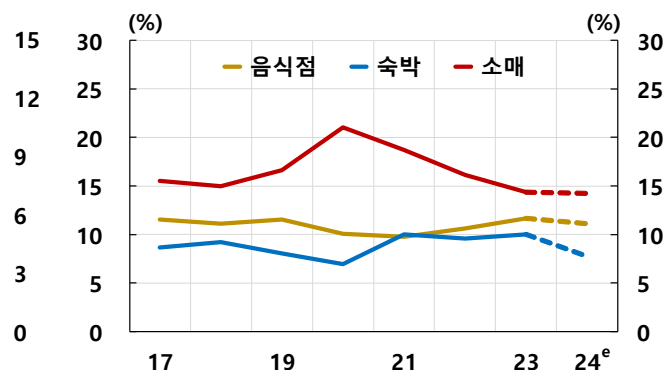
* 연도별 1~9월중 폐업건수: '22년 94 → '23년 82 → '24년 78 (-4.9%)

강원지역 업종별 폐업률¹⁾



주: 1) '24.10~12월 폐업건수는 추정치
자료: 행정안전부(지방행정인허가)

강원지역 업종별 창업률¹⁾



주: 1) '24.10~12월 창업건수는 추정치
자료: 행정안전부(지방행정인허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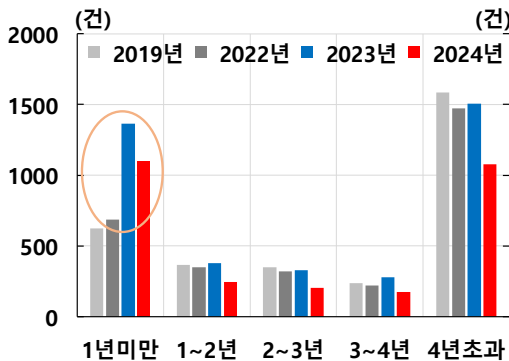
[음식점의 업력별, 시군별 폐업률]

- 음식점의 경우 업력별로는 저업력 업체의 폐업이 증가*하였으며, 시군별로는 양구, 철원, 양양 등의 폐업률이 높은 모습

* 폐업업체 평균 영업기간(연): '21~'22년 7.6년 → '23~'24.9월 5.8년 (-23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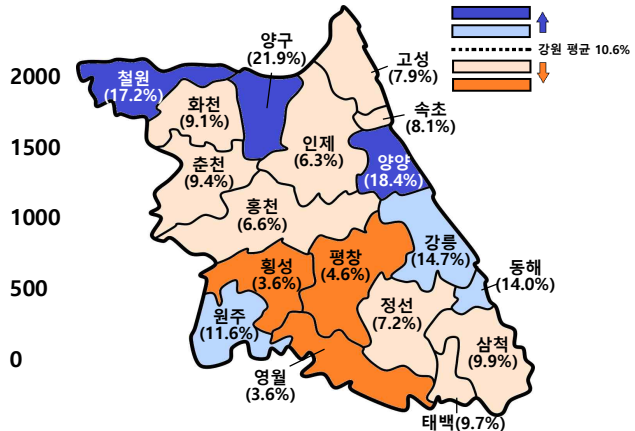
- (업력별) '23년 이후 영업기간 1년 미만의 음식점 폐업이 크게 증가
- (시군별) 접경지역인 양구, 철원 지역의 폐업률이 남북관계 갈등 고조, 군부대 이전·통폐합 등으로 인해 높은 모습

강원지역 폐업 음식점의 평균 영업기간



주: 1) '24년은 1~9월 폐업건수
자료: 행정안전부(지방행정인허가)

강원지역 시군별 음식점 폐업률¹⁾



주: 1) '24년 추정치 기준
자료: 행정안전부(지방행정인허가)

<참고 1>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개요

- 행정안전부·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국 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(인허가일, 폐업일자 등)를 '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개방'을 통해서 공개
- 동 자료는 지자체 인허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세통계(국세청), 서베이 기반 사업체조사 및 표준산업분류(통계청) 등과는 차이
- 본 보고서는 해당 자료의 음식점, 소매(유통), 숙박*의 데이터를 활용

* 음식점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관광식당 등
소매(유통): 대규모점포, 방문판매업, 통신판매업, 전화권유판매업 등
숙박: 숙박업, 관광숙박업, 관광펜션업 등(농어촌민박업 제외)

<참고 2> 지역내 건설업 폐업 신고*도 금년중 큰 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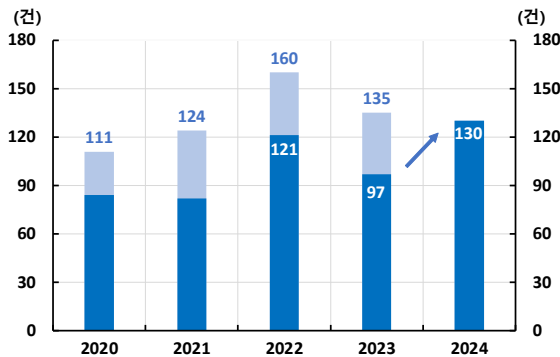
*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행정공고상의 폐업신고건수를 활용. 본 건수는 공고건수 기준으로 사업체 보유업종중 일부 폐업, 업종전환도 포함되어 있어 폐업업체수와는 차이

□ 강원지역 건설업체(전문·종합)*의 금년중 폐업 신고건수는 **전문공사업**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**큰 폭 증가**('24.1~10월중 141건, +27.0%)

* '22년 기준 강원지역 중소 건설업체중 전문공사업체는 23,654개, 종합건설업체는 3,130개(「중소기업기본통계」, 중소벤처기업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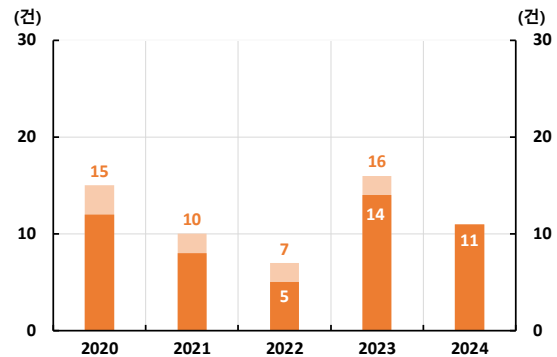
- 전문공사업체의 폐업신고는 금년 1~10월중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한 130건(+34.0%)으로 '22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
- 종합공사업체의 폐업신고도 '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

강원지역 전문공사업 폐업 신고건수¹⁾



주: 1) '24년은 1~10월중 신고건수
자료: 국토교통부

강원지역 종합공사업 폐업 신고건수¹⁾



주: 1) '24년은 1~10월중 신고건수
자료: 국토교통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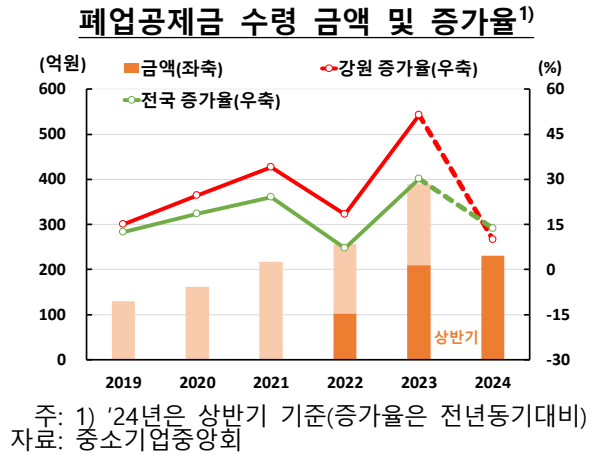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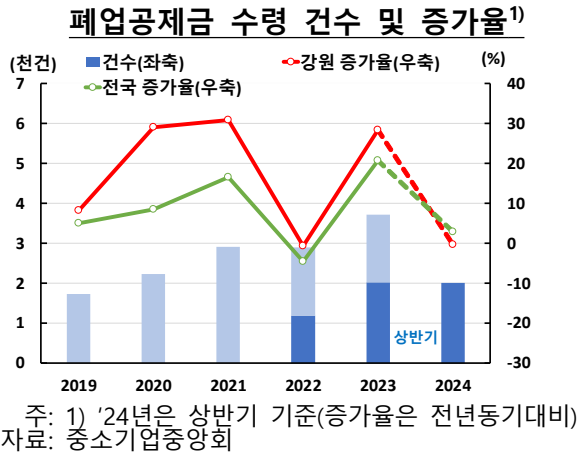
3 자영업자 폐업공제 및 대위변제

□ 폐업이 늘어나면서 폐업공제금* 수령,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**도 증가

* 노란우산 가입자(소상공인)는 폐업시 기존 납입 부금액에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목돈 수령
 **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증재단이 상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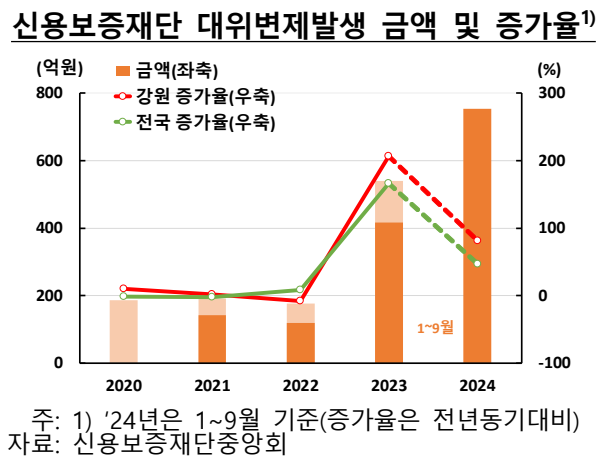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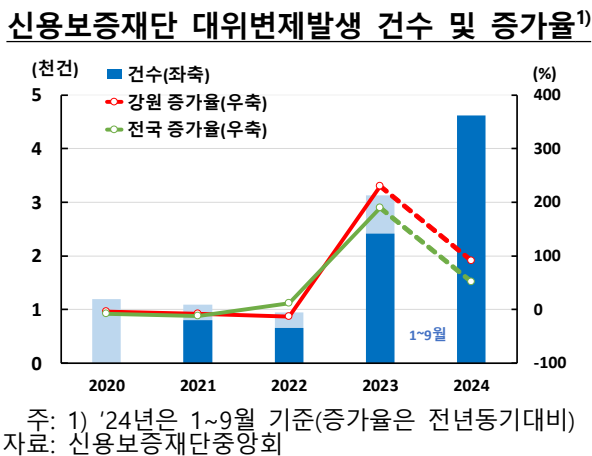
[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증가]

□ 강원지역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와 금액은 '23년 전국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금년 상반기에도 전년 상반기의 높은 수준을 유지



[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증가]

□ 강원신보의 대위변제발생 건수와 금액은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대비 큰 폭으로 증가(금년 1~9월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: 건수 +91.5%, 금액: +81.3%)



4 자영업자 부채

[자영업자 부채의 질 악화]

□ 강원지역 자영업자의 대출(잔액, 차주 수)은 금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*하였으나 **취약차주** 대출과 비은행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채의 질은 악화**

* 강원지역 자영업자의 대출은 폐업률이 늘기 시작한 '22년부터 크게 증가
 대출액(조원) : '21년말 17.3 → '22년말 20.7 → '23년말 22.1 → '24.6월말 21.5 (-0.6)
 차주수(만명) : '21년말 7.8 → '22년말 9.5 → '23년말 9.8 → '24.6월말 9.5 (-0.3)

**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(소득이 하위 30% 이내)이거나 저신용 상태인 사람

□ **[취약차주 부채 확대]** 강원지역의 취약차주 대출잔액이 금년 들어 크게 늘면서 취약차주 1인당 부채가 전년말 대비 **11.1% 증가***(전국 1.8% 증가)

* 강원 취약차주 1인당 대출액(억원): '22년말 1.98 → '23년말 1.89 → '24.6월말 2.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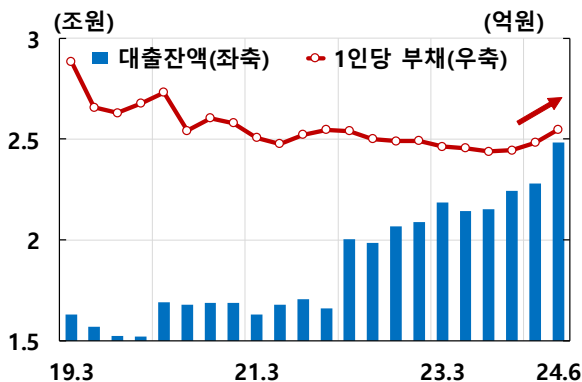
○ 저신용 차주 비중이 전년말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저소득 차주 비중이 증가

□ **[비은행 비중 증가]** 업권별로는 금년중 예금은행 대출은 감소하였으나 상호금융 대출이 전년말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비은행 비중이 증가

○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강원지역 자영업자의 상호금융 대출 비중이 확대*되어 전국 수준(30.5%)을 큰 폭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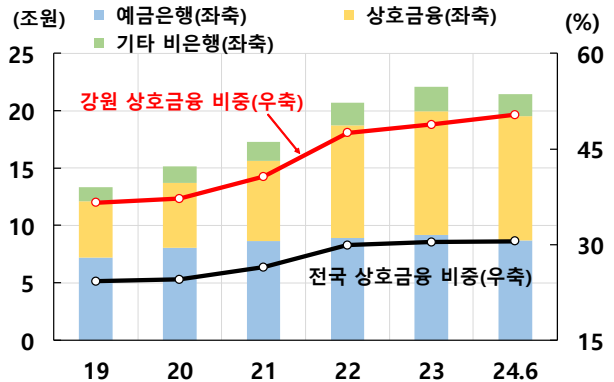
* '19년말 36.6% → '21년말 40.6% → '22년말 47.5% → '24.6월말 50.3%

강원지역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잔액¹⁾



주: 1) 말잔 기준
 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강원지역 금융기관별 자영업자 대출잔액¹⁾



주: 1) 말잔 기준
 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3.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

[평가]

□ 현재의 자영업자 폐업 증가는 일차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원책 만료, 고금리·고물가 누적으로 인한 내수 부진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

○ 특히, 강원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*이 높아 내수 부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임

* 강원지역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'23년 현재 23% 내외로 전남, 경북, 전북, 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(전국 평균 20%)

<참고 3> 자영업 성장의 구조적 변화 요인

□ **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인구구조, 유통구조*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선진국 수준**으로 점차 수렴할 것으로 보임**

* 김지연(2024)은 온라인 소비 비중 1%p 확대가 1년 동안 평균 숙박·음식점업(-2.3만명), 도소매업(-1.9만명)의 고용을 축소시킨다고 분석

**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(% '22년): 한국 23.5, 프랑스 13.1, 일본 9.6, 독일 8.7, 캐나다 7.2
이진국(2020)은 '18년 기준 자영업자 수의 31%(175만명)가 적정 규모보다 과잉 공급중이며, 과잉공급은 도소매업(61만명), 음식숙박업(36만명)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

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비규모 감소 및 소비패턴 변화*

*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(한국은행 광주전남·목포본부, 2024) 참조

○ 지역 인구감소로 총소비 규모 축소, 고령화에 따른 필수적 소비 위주의 소비 패턴 변화는 지역 자영업자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으로 예상

— 다만 베이비붐 세대 퇴직은 생계형 창업 중심의 자영업 진입을 높일 가능성

②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자영업 양극화 심화

○ 소비자들의 정보수집시 SNS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의존 비중이 커지며* 해당 매체의 활용 여부에 따라 자영업자 경영성과의 양극화가 심화

* 관광여행 정보 수집시 인터넷사이트, 모바일 앱을 통한 비중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('18년 19.3% → '21년 26.4% → '23년 29.5%, 한국관광 데이터랩)

[정책적 시사점]

⇒ 재취업·재창업 지원을 통해 폐업 자영업자의 **연착륙**을 유도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디지털화 등의 '**자영업 경쟁력 강화**'에 중점을 두고 정책 수립

① **[폐업부담 완화]** 경영상황 진단, 상권분석 정보 등에 대한 **전문가 중심**의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제공*하여 **원활한 폐업**을 유도

* 소상공인 폐업시 애로사항(%), '21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):

폐업시점 선정(18.7), 권리금 회수(16.5), 점포정리비용(14.5), 신고절차(13.4) 등

○ 일본의 사례처럼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제공*하여 지속불가 업체의 신속한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상권의 역동성 제고를 도모

* 일본은 재생전담기관인 중소기업재생지원협회를 중심으로 공인회계사, 세무사, 중소기업진단사 등으로 개별지원팀을 구성하여 재생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사업지속 여부에 대해 소상공인 스스로 판단(김경민, 2022)

— 정부는 내년부터 폐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를 시행할 예정

② **[회전문 창업 방지]** 강원지역의 재창업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준비되지 않은 회전문 창업을 방지하고 재취업 전환* 지원을 강화

* 정부는 내년부터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유인 확대를 위해 재취업자에게 훈련참여·취업성공수당, 고용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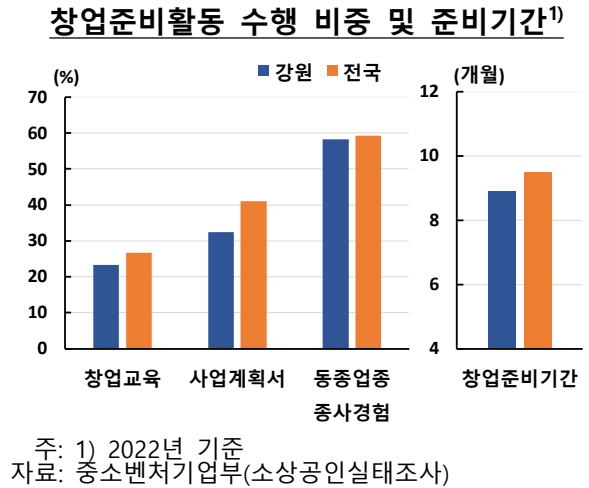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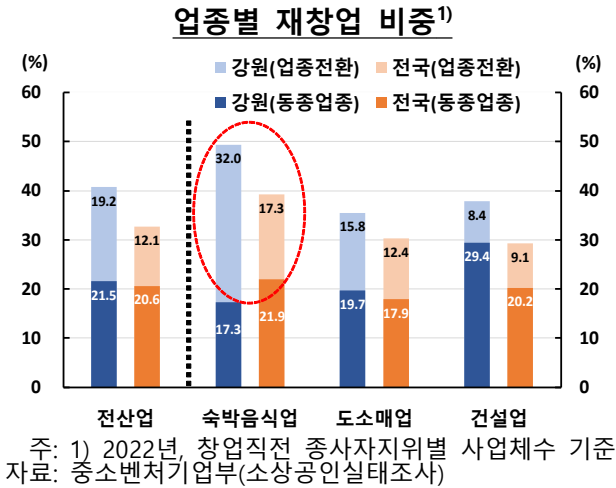
○ 강원 자영업자의 재창업 비중(동종·타종 포함)은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타업종에서의 진입이 매우 높음

— 최근에도 영업기간 1년 미만 음식점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채무 부담 등으로 회전문 창업이 지속되었을 가능성

③ **[준비된 창업 유도]** 창업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전 창업교육과 함께 창업컨설팅 제공으로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만 진입하도록 유도

- 강원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비용, 대출 의존도* 등을 고려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재창업은 채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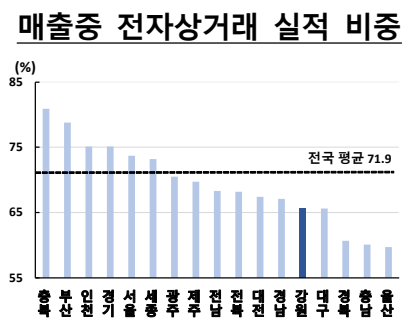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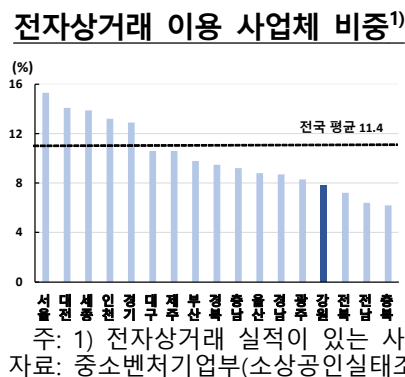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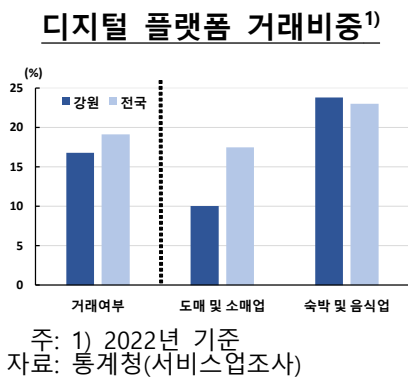
* 창업비용(백만원): 강원 93 > 전국 85, 대출 활용비중(%): 강원 31.9 > 전국 26.2



4 [디지털화 지원] 디지털 매체·기기의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*이 커지는 환경에서 업종·세대 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통해 강원지역 자영업자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

* 구진경 등(2024)은 서비스업 내에서 디지털 플랫폼 참여기업이 미참여 기업에 비해 매출과 생산성이 각각 14%, 27% 높다고 분석

- 강원지역 서비스업체의 디지털 플랫폼 거래 비중은 전국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활용도 또한 타 시도대비 하위권
- 특히 강원 도소매업체의 디지털 플랫폼 거래 비중이 낮은 상황



- 지자체, 플랫폼과 지역상권간의 협업·공동마케팅* 등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유도

* 일본은 '지역상업 자립촉진사업'을 시행하여 지역내 소규모 상점이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을 펼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

⑤ [지원업체 선별 강화] 정책자금의 취약업체의 퇴출을 늦추는 부작용*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자금지원

* 장우현(2016)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않은 가상의 상황에 대비하여 잔존율은 5.3%p 높아지고(폐업지연), 생산성은 4.9% 낮아진다고 분석

- 강원도의 G-스타트업(기술형 창업), 로컬벤처(지역자원 활용)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강화

<참고 문헌>

고지성(2022), “팬데믹 이후 강원지역 자영업황의 특징적 변화 및 향후 정책과제: 자영업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”, 한국은행 강원본부

구진경, 조재한(2024), “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”, 산업연구원

관계부처 합동(2024), “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”

김경민(2022), “주요국의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: 재생·폐업, 신용회복, 특별구제 중심으로”, 중소기업연구원

김민수, 선진산, 안중섭(2024), “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”, 한국은행 광주전남·목포본부

김성기(2020), “강원지역 자영업자 및 자영업 대출의 특징”, 한국은행 강원본부

김지연(2024), “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”, 한국개발연구원

김지운, 이진국, 한요셉(2020), “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”, 한국개발연구원

배기원, 어승훈(2024), “강원 영동지역 자영업자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요인 점검”, 한국은행 강릉본부

백예인, 윤상하, 한원태 등(2022), “코로나19 위기와 기업경쟁구도 변화: 과거 경제위기와 비교를 중심으로”,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장우현(2016), “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”, 한국개발연구원

최동명(2022), “미시자료를 이용한 충북 자영업자 급감 현황 및 요인 분석”, 한국은행 충북본부